

미술관 일기

Museum Recollections

《미술관 일기》는 지난 30년간 환기미술관에서 진행한 200여회의 전시를 시대순으로 돌아보며 환기미술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시를 선정, 당시 출품된 작품 및 전시 관련 영상, 사진 등의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지난 환기미술관의 30년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초기 10여년의 환기미술관의 전시는 환기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고 김환기의 유작을 정리하여 그의 예술 세계를 정립해나가는 연구가 특징적이다. 주요 전시로 ‘프리환기’, ‘환기재단 작가’시리즈, 현재 ‘수화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의 시작점이 된 《근원과 수화》, 김환기 작품의 재료별, 매체별, 주제별 연구가 특징적인 《신문지에 유채》, 《향안에게》 등이 있다.

2004년 설립자 김향안 여사의 작고 이후 환기미술관은 김환기 연구기관으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오고 있다. 주요 전시로 현재 공간 프로젝트의 전신인 《공간의 시학: Transparency and Virtuality》, 당시 생소했던 ‘북 아트’ 장르를 소개한 《리브르 오브제(감상하는 책)》, 미술관 소재지인 ‘부암동’ 지역 주민들과 동 지역 아티스트 그리고 미술관의 협업으로 진행한 《환기미술관 부암동 아트프로젝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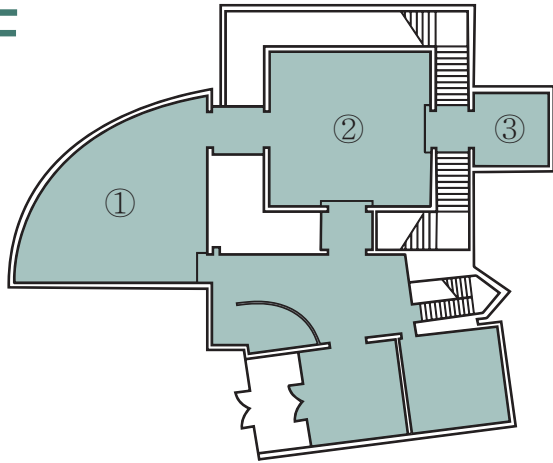
이후 환기미술관은 동시대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을 통해 김환기 작품의 색과 그가 사용했던 물감의 색을 분석하여 환기의 색채를 탐구해본 《김환기 색채의 미학》, 문학과와의 조예가 깊었던 김환기의 조형세계를 ‘시문학’이론으로 재해석한 《수화시학》, 환기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중심으로 환기미술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 《환기미술관 하이라이트》 등을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환기미술관은 계속해서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조형세계의 탐구 등을 통해 우리시대 미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미술관 일기》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해설은 챗터별로 진행되니 리플렛 참고하시어 플레이 리스트에서 선택해주세요.
- 이어폰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감상자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소리 조절 부탁드립니다.

1F



Chapter 1. 환기미술관, 서사의 시작

- ① 자료로 보는 미술관 30년
- ② 오마주 전관 개관 기념전
- ③ 미술관 건립을 기념하며 재탄생한 김환기 이미지들

환기미술관은 1992년 11월 5일 본관 개관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3년 아트샵과 특별 전시실이 위치한 별관, 1997년 교육실과 수향산방이 위치한 달관을 개관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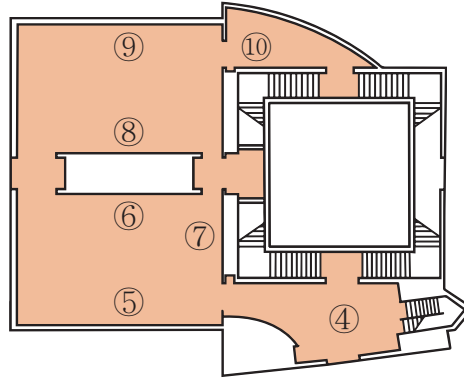
환기미술관 개관기념전에 대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환기미술관 시작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Chapter 2. 환기재단 레거시 Legacy

- ④ 프리환기(Prix Whanki)
- ⑤ 환기재단작가들

환기미술관의 전신이자 운영 모체인 환기재단은 1970년대부터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환기재단의 주요 사업인 프리환기와 환기재단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환기미술관의 전시에 반영되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모작가 기획전의 형태로 이어진 프리환기와 환기미술관 소장품의 일부인 초기 환기재단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환기재단의 비전과 의의를 되새겨 본다.

2F



Chapter 3. 김환기 초기 연구

- ⑥ 신문에 유채
- ⑦ 콜라주
- ⑧ 과슈집 『향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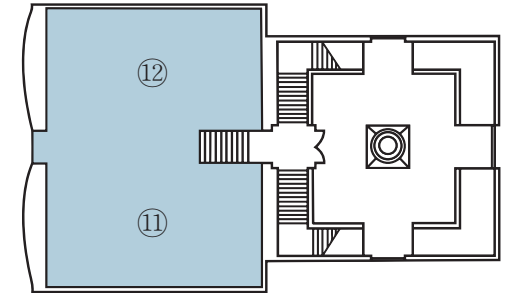
1992년 개관 이후 10여년의 시기동안 환기미술관은 수화 김환기의 유작을 정리하여 김환기 예술세계 정립의 기틀을 형성해 나갔다. 당시 주제별, 매체별, 재료별 연구를 통한 기획전과 출판물 발행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전시와 출판물을 살펴 초기 김환기 연구 활동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4. 작가미술관 너머로의 도약

- ⑨ 유기적 소통을 위한 미술관 프로젝트
- ⑩ 표지화에서 북 아트까지

부암동 소재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 본 ‘부암동 아트프로젝트’, 환기미술관 공간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시리즈 및 김환기의 표지화와 연계한 북 아트 전시 등 2000년대 중반부터 환기미술관은 김환기의 연구기관으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시대 현대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오고 있다.

3F



Chapter 5.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 ⑪ 색채의 미학
- ⑫ 관람객이 선정한 환기미술관 인기 소장품

《김환기 색채의 미학》은 현대 기술을 통해 김환기 작품의 색과 그가 사용한 물감의 색을 분석하여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젝트였으며, 《환기미술관 하이라이트》는 환기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중심으로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동시 환기미술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 전시다. 《환기미술관 하이라이트》를 바탕으로 환기미술관은 온라인을 통해 선정한 환기미술관 인기 소장품을 소개하는 등 미래를 향한 미술관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연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별관 미술관 즐겨찾기

Bookmarks of the Whanki Museum

2022.04.15-7.10

달관 우리끼리의 얘기-환기미술관이 건립되기까지

The Story between Us -
The Journey to the Whanki Museum

2022.04.15-12.31